

공동요구안 의견일치

임금은 사업장별 추가 논의

2017년도 경기지부 집단교섭 의견일치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는 2017년도 경기 지부 공동요구안 및 임금인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일치하고 서명날인 한다.

1. 2017년 지부 공동요구

1) 공민권 행사보장

회사는 조합원이 근로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하면 아래의 기준으로 허용한 시간에 대해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① 공적인 업무로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따라 출두할 때 해당 소요시간.
- ②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보궐선거 시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투표시간 2시간을 보장한다.
(단, 각 사별 단체협약(노사합의)이 상기보다 상회할 경우 그에 따른다.)

2) 산재은폐방지 및 재해자 보호

- ① 회사는 재해 발생 시 재해자의 구호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성 재해에 대해서는 병원 초기 진단 시 노,사 관계자가 동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노,사 관계자는 재해 발생 시 1주일 이내에 공동으로 재해요인을 조사하며,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한다.
(단,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별도 논의구조에서 협의한다.)
- ③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관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해조사결과에 따라 협조한다.

2. 2017년 각 사업장별 임금인상액

회사명	제시안	회사명	제시안
계양전기	기본급 월 10,000원	에스제이엠	기본급 월 67,000원
대원산업	기본급 월 90,000원	우창전기	기본급 월 24,000원
두원정공		주연테크	기본급 월 50,000원
신한밸브	기본급 월 15,000원	케이피코	

3. 부속합의

2017년도 임금인상이 미 합의된 사업장은 교섭을 통해 논의하고, 의견 점진된 내용을 본 합의서에 삽입한다.

2017. 7. 20

전국금속노동조합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경기지역 관계사용자)
경기지부장 정규전 	사용자 대표 정성훈 

8월에 임금이 끝내자

공동요구안 중 1) 공민권 행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출두기관범위에 관해서는 ‘공적인 업무로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수사기관의 소환요구에 따라 출두할 때 해당 소요시간’으로, ‘임시공휴일이 아닌 보궐선거 시 투표참여 시간 2시간 보장’으로 의견을 모았다. 각 사별 단협(노사합의)이 더 높으면 사업장 협약에 따른다.

2) 산재은폐방지와 재해자 보호에서도 사고성 재해의 초기 진단 시 병원 노사 동

행, 1주일 내 노사공동 재해요인조사 등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합의를 했다.

지부는 “임금 미합의 사업장은 8월 말까지 논의를 거쳐 지부 9기 임기 내 마무리하자”며 8월까지 최대한 임금교섭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사용자측은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임기 내 마무리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 같이 끝낸다

지부는 “임금 미합의 사업장이 절반 넘게 남은 상태. 공동요구에 관해 의견일치 했지만 쟁의권은 살아있다. 교섭위원 활동 시간도 그에 준해서 보장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의견일치서에 서명했다. 이후 사업장 별 임금이 합의 되는대로 집단교섭 합의서에 삽입하고, 전체 사업장 교섭이 마무리 되는대로 차기교섭(조인식)을 잡는다.

지부는 언제나 집단교섭 사업장 전체의 임단협이 마무리될 때 다 같이 끝낸다. 휴가 후 사업장 상황을 점검해 집단교섭 교란사업장, 대각선교섭 사업장, 신생사업장 등에 힘을 집중할 계획을 세울 것이다.

임기 내 17년 임단협을 말씀하게 다 같이 끝내고, 10기 좋은향기 금속경기의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휴가 전 의견일치

7월 20일(목) 13차 교섭 만에 지부 공동요구안에 노사가 의견일치했다. 민주노총 안산지부 회의실에서 열린 13차 교섭에는 사용자측 8개사 15명, 노동조합 8개사 51명이 참가했다. 사측은 추가임금안과 공동요구안을 제시하고 “공동요구안은 축소교섭을 해서 오늘 합의하자”고 했다.

8개 사 중 두원정공, 현대케피코는 임금안이 없고, 계약전기는 1만원 그대로, 우창도 전차 교섭과 같았다. 신한은 1만원에서 5천원 오른 1만5천원을 냈다. 주연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추가 임금협상이 예정되어 있다.

교섭위원들은 “임금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들 있는데 축소교섭이 우려된다. 현대케피코 등은 완성사 핑계대면서 시간을 끄는데, 제시안 낼 여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부는 집단교섭군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업장에 특별히 투쟁을 배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마무리가 안 되면 교란 사업장을 선정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집단교섭 전체를 교란하는 사업장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사는 “사업장 임금논의가 별도로 필요한 곳이 있다. 공동요구는 축소교섭에서 좁혀가자”고 요청했다. 정회를 하고 축소교섭이 이어졌다. 축소교섭 참가자는 12차 교섭과 같다.

새로운 용기 속속



폭염 뚫고 분위기 업!

7월 19일(수) 코리아에프티에서 지부 파업결의대회가 열렸다. 폭염경보가 뜬 뜨거운 날씨를 뚫고 5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코리아에프티 공도공장에 모여 약식집회를 한 후, 공단을 가로질러 행진해 본사로 갔다. 행진하는 동안 공단의 많은 노동자들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다. 집회에 참가한 간부들의 소감을 들었다. 안산에서 온 간부들은 “시골길을 걷는 것 같다. 서울이나 안산의 공단에서 행진할 때보다 기분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두원의 한 간부는 “노동자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 공도공단에 있는 사업장들이 휴게실도 없고 노동조건이 굉장히 열악해 보였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서, 노조 만들기도 좋은 환경일 것 같다”며 확산의지를 보였다.

2017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기업들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또 여러 계획을 세울 것이다. 기본급을 인상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상여금이나 일시금에 손을 대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밀장빼기” 의도가 벌써 들쭉인다. 이런 회사의 밀장빼기에 맞서 최저임금 인상 직후인 지금이 노조를 만들어야 할 때다. 공도공단을 둘러 본 여러 간부들은 “자주 공단을 돌며 선전전도 하고 투쟁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어깨에 힘 뻑! 목소리 힘 뻑!

지회 조합원들도 힘을 뻑 받았다. 6구역 박환선 조합원은 “6구역~응원법

도 서툰고 작년보다 좀 더 나은 투쟁을 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도 크고 조합원이 조금 줄어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코리아에프티지회가 연대를 받아서 좌우가 든든하니 으쌰으쌰 망을 쳐주니까 뭐랄까 감동도 몰려오고 뿌듯하기도 하고 용기도 나고 투쟁가 부를 때 조금 더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힘이 생기더라구요! 연대의 힘이 새로운 각오와 용기를 준 결의대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 투쟁!!!”이라며 생생하고 울림 있는 후기를 남겼다. 여러 조합원들이 “더운 날씨에 하나 되어 투쟁하고 외치고 노래 같이 부르며 감동이였다.” “금속노조 동지들은 한 가족이라는 걸 몸소 체험했다. 나도 가끔 귀찮고 힘들다 생각했는데 이번일로 좀 부끄럽고 이기적인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도 도움 받고 또 다른 동지들도 연대해주고 하는 것이 금속노조의 힘 인거 같다.”며 소감과 감사인사를 전했다.

투쟁 끌어오른다



대창지회는 19일(수) 4시간 파업 후 안성으로 갔다. 회사는 노무사를 앞세워 작년에 합의한 노동조합활동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뒤끝을 부리고 있다. 12차까지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는 상여금을 100% 기본급화 하는 것을

전제로 6만원 인상을 주장한다. 지회는 아침 출근선전전과 파업 등 작년 기세 그대로 노조기반을 탄탄하게 굳히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말레동현화성지회도 18일(화) 투쟁선포식을 열었다. 회사는 ‘440원이 끝’이라고 공고를 붙였었다. 11일 교섭에서 지회의 최종안(470원 인상)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아 교섭이 결렬됐다. 회사는 교섭재개를 요청, 18일 시급 450원 타결금 35만원을 제시했다. 오는 25일(화) 15차 교섭이 열린다.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16일(일) 전조합원 단합대회를 열었다. 굵은 날씨에도 100명 넘는 조합원이 참가해 반격의 시작을 알렸다. 우리, 말레동현화성, 삼화, 코리아에프티, 대한솔루션, 현대모비스화성지회 등 지역의 사업장들도 많이 응원하러 왔다. 한온시스템평택지회, 에스제이엠지회, 신한발브분회도 마음을 보냈다. 13년 노조 설립 이후 위아는 복수노조를 이용해 폐업, 교섭권 박탈로 끊임없이 노조를 탄압했다. 그럼에도 올 해 보전을 담당하는 업체 보경에서 새로 가입해 교섭을 이어왔다. 지회는 17일(월) 조정신청을 하고 휴가 이후 본격 투쟁을 준비 중이다. 경기지부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가 다시 한 번 날개를 펼치려 한다.